

농촌기본소득 첫 시범모델 도전 ‘남원 피움하우스’ 호응

순창군, 연 100만원 기본소득 지급 위해 차별화된 전략·실행 방안 제시

순창군이 이재명 정부 국정 철학인 ‘기본소득’ 실현을 선도하기 위해 ‘농촌기본소득’ 추진에 발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최영일 군수와 군 관계자들은 최근 국정기획위원회 사회 1분과 및 경제 2분과, 전북특별자치도 농생명정책과를 잇달아 방문해 ‘농촌기본소득’ 추진 당위성과 강한 추진 의지를 직접 설명했다.

군이 제안한 ‘농촌기본소득’은 2026년부터 순창에 거주하는 모든 군민에게 분기별 25만 원, 연 100만 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차별화

된 전략과 실행 방안을 제시하며 정부와 도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순창군은 전북 최초로 ‘기본사회협’을 신설하고, 이동행복수당, 청년농자통장, 농민기본소득 등 다양한 보편적 복지 정책을 선도적으로 추진해 왔다.

이를 통해 축적된 행정 경험과 정책 기반으로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번 ‘농촌기본소득’ 추진은 단순한 현금 지원을 넘어 열악한 농촌의 구조적 문제 해결과 국가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실행 모델로서, 순창이 중심적 역할을 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담고 있

다.

앞으로 군은 조례 제정과 복지부 사회보장제도 협의 등 관련 절차를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전국적인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실증 모델 구축에 나선다.

최영일 군수는 “순창은 보편적 복지 정책, ‘농촌기본소득’ 실현에 최적의 기반을 갖춘 준비된 지역”이라며 “정부와 도의 제도적 지원이 더해진다면 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국가 균형발전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순창=이양원 기자

더욱 완성도 높은 ‘임실N치즈축제’ 만든다

축제 제전위원회 임시총회 개최

임실군이 지난달 30일 임실치즈테마파크에서 2025 임실N치즈축제의 성공 개최를 위한 축제제전위원회 임시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는 심 민 군수를 비롯한 제전위원, 대행사, 관계자 등 30여 명이 참석해 폭염 속에서도 축제 준비에 속도를 내며 지역의 대표 가을 축제로서의 면모를 갖춰가고 있다.

축제 기본계획안에 대한 보고와 함께 프로그램 구성, 운영 방향, 안전관리 대책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의견이 오갔으며, 제전위원들은 축제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했다.

군은 이번 총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오는 10월 8일부터 12일까지 5일간 열리는 2025 임실N치즈축제가 임실N치즈의 명성과 가치를 확산시키는 데 초점을 맞췄다.

올해 축제는 주요 프로그램이 대폭 확대되어 △저지종 원유 이용 프리미엄 숙성치즈 홍보 △성인 다이어트와



임실군이 지난달 30일 임실치즈테마파크에서 2025 임실N치즈축제의 성공 개최를 위한 축제제전위원회 임시총회를 개최했다.

뼈 건강에 좋은 무기양 요거트 홍보 판매 △임실N 글로벌치즈 푸드페어 △숙성치즈를 활용한 맛있는 디지털 풍류체험 △국가대표 임실N치즈 대형 쌀피자 등 10개 분야 70여 개의 프로그램이 관광객들을 맞이할 예정이다.

또한, 지난해 큰 호응을 얻었던 임실N치즈 20% 할인 판매를 올해도 이어가며, 12개 읍면 생활개선회에서 정성껏 준비한 엄마표 향토 음식과 맛 좋은 암소 한우고기 판매 등 먹거리를 한층 강화한다.

매년 큰 호응을 얻고 있는 천만송이 국화꽃 경관이 축제장 일대를 수놓으

며, 유령정 참여와 함께, 저지종 원유로 만든 프리미엄 치즈를 체험할 수 있는 체험과 볼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심 민 군수는 “올해는 임실 방문의 해이자 축제 11회째를 맞이하는 뜻깊은 해인 만큼, 그간 10년을 쌓아온 경험과 열정을 바탕으로 더욱 완성도 높은 2025 임실N치즈축제 개최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치즈축제의 성공 개최를 넘어 육정호 출렁다리, 불어섬 생태공원, 왕의숲 성수산, 오수의견관광지 등 주요 관광지와 연계한 천만송이 임실시대를 반드시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남원의료원, 영상검사 적정성 평가 ‘1등급’

남원의료원(원장 오진규(사진))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표한 ‘제1차 영상검사 적정성 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1등급을 획득했다.



이번 평가는 영상 검사 전 평가의 철저함, 방사선 사용의 효율성, 환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진행, CT, MRI, PET 장비를 1대 이상 보유하고, 영상 검사 비용을 청구한 의원급 이상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했다.

주요 평가지표 내용은 △조영제 사

용 검사 전 환자 평가 실시율 △MRI 검사 전 환자 평가 실시율 △폭저감화 프로그램 사용여부 등으로, 해당 평가지표는 실제 환자의 검사 질과 안전을 측정하는 기준이 된다.

오진규 원장은 “영상검사 적정성 평가 결과로 남원의료원 영상검사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인정받았다”며, “지속적인 양질 관리로 환자 중심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청년·신혼부부 만원주택 올해 처음 도입

남원시가 올해 처음 도입한 청년 및 신혼부부 만원주택 ‘남원 피움하우스’ 정책이 청년과 신혼부부들 사이에서 뜨거운 관심과 호응을 얻고 있다.

입주자 모집 기간은 7월 21일부터 8월 14일까지이지만 접수 10일 만에 138세대가 접수해 11세대를 모집에 비해 12배 1의 높은 경쟁률을 나타냈다.

시는 서류 및 자격 검토를 거쳐 다음 달 최종 입주자를 발표할 예정이며, 이번 모집은 선착순이 아닌 정량평가 방식으로 진행, 연령(25점), 거주기간(25점), 소득기준(25점), 입주예정인원수(25점) 등 총 100점 만점의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선정된다.

동점자 발생 시에는 소득이 낮은 순, 남원 거주기간이 짧은 순, 연령이 어린 순으로 우선 선정되므로, 접수 인원

방문의 날’이 운영될 예정이다.

‘남원 피움하우스’는 남원형 수요맞춤형 주거복지 브랜드로, 빈집과 유휴건물을 리모델링해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저렴한 가격에 제공하는 사업으로, 월 사용료 1만원, 보증금 100만원으로, 기본 2년 거주에 한 번의 연장을 통해 최대 4년까지 거주가 가능하다. 무엇보다 병장고, 세탁기, 에어컨, 책상, 의자 등 기본 가전과 가구가 구비되어 있어 입주자들은 몸만 오면 즉시 거주할 수 있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남원 피움하우스 입주자 모집에서 나타난 높은 경쟁률은 주거 안정에 대한 청년과 신혼부부의 절실한 수요가 반영된 결과”라며, “공공 확대를 검토해 더 많은 청년과 신혼부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시, ‘고정밀 전자지도 구축 챌린지’ 공모 선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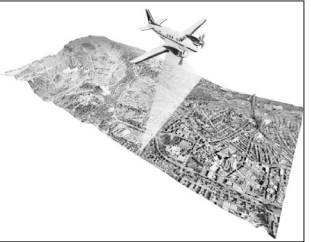
남원시는 국토교통부 산하 국토지리정보원이 주관하는 ‘고정밀 전자지도 구축 챌린지 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되어 국비 10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고정밀 전자지도 구축은 1/1,000 수치지형도 경선 및 제작과 아울러 고정밀 공간정보 기술을 활용해 지역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략을 지자체에서 수립하는 사업이다.

남원시는 2024년부터 2년 연속으로 1/1,000 수치지형도 제작사업을 꾸준히 추진하며 고정밀 공간정보 구축 역량을 내실 있게 다져왔다.

특히 최근 발생한 대형 산불에 착안하여 이번 챌린지 공모를 위해 지리산 국립공원 일원의 산림재해 문제를 핵심 과제로 설정하고, 전략적인 사업계획서를 마련하는 등 철저한 준비과정을 거쳤다.

/남원=김기두 기자



이러한 노력으로 남원시는 1차 서면평가와 2차 발표 평가를 통해 기획력, 실행 가능성, 사업계획 적정성 등에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이를 통해 확보한 국비는 2026년에 사업이 추진, 총 20여원을 투입해 수치지형도 제작과 산림재해 통합관리를 위한 고정밀 데이터 구축으로 스마트 산림재해 관리 기반을 마련하고 활용할 계획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순창군의회, 제295회 임시회 개최

순창군의회(의장 송준석)는 지난 1일 제295회 임시회를 열고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앞서 7월 31일에는 제294회 제1차 정례회 폐회 중 첫 번째 행정복지위원회를 열어 김정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순창군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 ‘순창군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거구역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포함한 조례안 4건 중 3건과 동인의 1건을 원안 가결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다만 ‘순창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원 필요성 등 세밀한 심사를 위해 심사를 보류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을 9월 18일부터 26일까지 9일간으로 확정하고, 의장을 제외한 7명의 의원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감사계획서는 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 보고될 예정이다.

/순창=이양원 기자

지역 소식통

남원시보건소, 모유수유 행사 8월 한 달간 추진

남원시보건소(소장 한용재)는 세계모유수유주간(8월 1일~7일)을 기념하기 위해 오는 8월 한 달 다채로운 행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세계모유수유주간은 세계보건기구(WHO)와 유니세프(UNICEF)가 모유 수유를 촉진하기 위해 지정한 날로 매년 8월 첫째 주를 모유 수유 주간으로 정해 기념하고 있다.

이번 행사는 모유 수유의 중요성과 장점을 교육·홍보함으로써 모유 수유를 촉진하고 실천할 수 있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행사는 관내 임신부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주된 내용으로는 △출산 산모 기승 마사지 서비스 지원 및 수유 자세 교정 등 가정방문 모유 수유 클리닉 △모유 수유 및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교육 △(온라인) 모유 수유 킷 풀고 수유용품 선물 받기이다.

이외에도 보건소에서는 매월 둘째 주 화요일 국제모유 수유 전문가와 함께하는 1:1 모유 수유 클리닉 운영 및 유축기 대여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참여는 남원시보건소 모자보건팀(063-620-7981~3)으로 문의하면 된다.

/남원=김기두 기자

임실군, 기술보급 블렌딩 협력모델 공모사업 선정

임실군이 농촌진흥청에서 주관하는 2026년 기술보급 블렌딩 협력모델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지난 1일 밝혔다.

기술보급 블렌딩 협력모델 사업은 연구-지도-민간 기술의 수평적 협력 네트워크를 통해 지역 복숭아 산업의 현안문제를 해결하고 지역농업 발전모델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이번 공모는 1차 서류심사와 2차 발표심사를 통해 최종 선정됐다.

공모사업 선정으로 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2026년부터 2027년까지 2년간 사업비 10억원(국비 5억원, 지방비 5억원)을 투입하여 기후변화 대응 안정 생산 기반 구축, 복숭아 최신 방제력 보급, 현장 교육 강화 등 임실 복숭아 산업 강화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임실=진홍영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춘향전의 무대

남원 광한루

광한루는 조선시대 이름난 황희정승이 남원에 유배되었을 때 지은 것으로 처음엔 광통루(廣通樓)라 불렸다고 한다. 광한루(廣寒樓)라는 이름은 세종 16년(1434) 경인지가 고쳐 세운 뒤 바꾼 이름이다. 지금 있는 건물은 정유재란 때 불에 탄 것을 인조 16년(1638) 다시 지은 것으로 부속건물은 경조 때 세운 것이다.

규모는 앞면 5칸·옆면 4칸이며 지붕은 옆면에서 볼 때 여덟 팔(八)자 모양을 한 팔작지붕이다. 누마루 주변에는 난간을 둘렀고 기둥 사이에는 4면 모두 문은 남아 놓았는데, 여덟에는 사방이 트이게끔 안쪽으로 걸 수 있도록 해 놓았다. 또한 누의 동쪽에 있는 앞면 2칸·옆면 1칸의 부속건물은 주위로 툇마루와 난간을 둘렀고 안쪽은 온돌방으로 만들어 놓았다. 뒷면 가운데 칸에 있는 제단은 조선 초기에 만든 것이다.

춘향전의 무대로도 널리 알려진 곳으로 넓은 인공 정원이 주변 경치를 한층 돋우고 있어 한국 누정의 대표가 되는 문화재 중 하나로 손꼽히고 있다. (출: 문화재청 제공)